



 <p>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p> <p>http://www.emerics.org/</p> <p>2018. 09. 21. 인도·남아시아</p>	<p>「이슈&트렌드」</p> <p>인도 2018/19년 1분기 성장률과 전망</p> <p>작성 이정미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p>
--	--

- 8월 31일 인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2018/19년 1분기(4~6월) 8.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이는 2015/16년 4분기(1~3월) 9.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임.
 - 인도 경제는 화폐개혁과 단일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미중 무역전쟁, 미 금리 인상, 신흥국 통화위기, 국제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표 1.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전년 동기 대비)

구성요소 (GDP 대비 비중,)		2016/17			2017/18				2018/19
		Q2	Q3	Q4	Q1	Q2	Q3	Q4	Q1
GDP 성장률		7.6	6.8	6.1	5.6	6.3	7.0	7.7	8.2
수요	민간소비 (59)	7.5	9.3	4.2	6.9	6.8	5.9	6.7	8.6
	정부지출 (11)	8.2	12.3	22.5	17.6	3.8	6.8	16.9	7.6
	총고정자본형성 (29)	10.5	8.7	6.0	0.8	6.1	9.1	14.4	10.0
	수출 (19)	2.4	6.7	7.0	5.9	6.8	6.2	3.6	12.7
	수입 (22)	-0.4	10.1	6.6	18.5	10.0	10.5	10.9	12.5
공급	농림수산업 (17)	5.5	7.5	7.1	3.0	2.6	3.1	4.5	5.3
	광공업 (29)	6.8	7.2	5.0	0.1	6.1	7.1	8.8	10.3
	제조업 (17)	7.7	8.1	6.1	-1.8	7.1	8.5	9.1	13.5
	건설업 (7)	3.8	2.8	-3.9	1.8	3.1	6.6	11.5	8.7
	서비스업 (54)	7.9	6.5	6.3	9.5	6.8	7.7	7.7	7.3

주: Q1(4~6월), Q2(7~9월), Q3(10~12월), Q4(이듬해 1~3월).
 자료: CEIC (검색일: 2018.9.12.)

- 2018/19년 1분기 기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은 현재 상승국면에 있는 인도 경제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¹⁾
- 인도 경제는 화폐개혁과 GST 도입에 따른 혼란으로 2017/18년 1분기 5년래 가장 낮은 5.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번 분기에는 당시 크게 위축된 분야의 성장이 도드라짐.
 - 수요 측면에서는 고정투자와 민간 소비의 확대,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이번 분기 성장을 견인함.²⁾

1) 경제학자들은 2018/19년 1분기 7.5%의 성장률을 예측함.(자료: Business Standard(2018.8.17.), GDP likely to grow at a healthy 7.5% in first quarter, say economists)

2) 2017년 7월 GST 도입전 GST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재고를 축소하면서 제조업과 고정투자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업은 2016년 11월 시행된 화폐개혁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됨.

- 고정투자자와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각각 0.8%, 6.9%였으나 2018/19년 1분기 10.0%, 8.6%로 확대됨.
- 전년 동기 -1.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제조업과 1.8%의 부진한 성장률을 보인 건설업이 2018/19년 1분기 각각 13.5%, 8.7% 성장
- 한편 GDP의 54%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화폐개혁 이전까지 8~9%대의 성장률을 지속하며 경제성장률을 견인했으나, 2018/19년 1분기 7.3%에 불과한 성장률을 기록
- 한편 인도 통계청, 인도산업연맹(CII) 등은 인도 정부의 개혁 조치가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냄.
- 인도뭄바이주가지수(Sensex)는 이러한 기대감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루피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신흥국 증시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³⁾

- 인도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 약화와 금리 인상 등 대내적 요인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2018/19년 7%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인도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과 통화가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25% p씩 기준금리를 인상했음.
 - 루피화 가치 하락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 IMF, RB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2018/19년 인도 경제가 7% 초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 IHS와 DBS는 1분기 8.2%의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성장률 둔화를 예측하면서 2018/19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7.1%, 7.4%로 유지 **EMERICs**

그림 1. Sensex 주가지수 및 루피/달러 환율 추이



자료: CEIC(검색일: 2018. 9. 12).

표 1. 주요 기관 2018/19년 인도 경제성장 전망

기관	전망치(%)
IMF	7.3
World Bank	7.3
RBI	7.4
India Ratings	7.2
IHS	7.1
DBS	7.4

자료: 언론자료종합.

3) 달러당 루피 환율이 72.6으로 최고점을 찍은 9월 10일 SENSEX지수가 9월 10일과 11일 2018/19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12일 다시 반등함.